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40째주 (10월 3일)

정교회 주보



성 안드로니코스와 성 아타나시아 수도사

루가 제 2주일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들

디오니시오스 아레오파고 아테네의 주교순교자

제 6조, 조과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 14, A 42
-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들 찬양송 / 각종예식서 350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II고린토 4:6~15 / 봉독서 248
- 복음경 : 루가 6:31~36 / 122, B 64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안드로니코스와 성 아타나시아 수도사

우리 교회에서 10월 9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안드로니코스와 그의 아내 성 아타나시아는 540년 경에 함께 살았습니다. 부부는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출신으로 덕이 많았고, 부유했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안드로니코스는 안티오키아에서 은세공사로 살았고, 결혼하여 요한과 마리아 두 자녀를 두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같은 날 죽었습니다. 두 자녀의 죽음으로 안드로니코스와 아타나시아는 슬픔에 빠졌고, 특히 어머니 아타나시아는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슬픔은 곧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성인이 나타나서 아타나시아에게 “울지 마라, 너의 통곡이 죽은 이들의 고

요를 흔들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느끼면서 남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안드로니코스도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자신들의 재산을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수도원에는 생필품을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위안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났고, 거기에서 다시 이집트로 가서 서로의 동의하에 안드로니코스는 다니엘 수도원으로, 아타나시아는 타베니시안스 수녀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남은 생애를 금욕하며 보낸 후에 평화롭게 안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부모와 형제 친구를 떠났으며, 나아가 그들이 생활해왔던 일터와 가정을 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삶을 살았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족과 일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말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다. 먼저 나 자신을 버린다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이토록 어려운 일을 한 후에는 어떤 보상이 나에게 올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자신을 버리는 삶'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주님을 따랐을 때 오는 보상에 대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

해주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

명을 받을 것이다.”(루가 18:28-30)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성취하려면 우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어 생활하신 모습을 따르는 일이다.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겸손한 마굿간에서 태어나시고, 33년간 이 세상에 사시면서 모든 병자, 약자, 굶주린 이들, 고통 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그들의 모든 고난을 자신의 짐으로 받아들이셨다. 더 나아가 육신의 고통을 받으시며 죽임을 당하실 때에도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좋은 옷을 입기 위해, 좋은 집에 살기 위해 늘 넘치게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물질적, 정신적 풍요로움을 찾아 살고 있다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욕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삶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로께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닌 혈벗은 이들을 생각하며 주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따라갈 때 비로소 사도 바울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파이시오스 성인의 기도(2)



주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가정과 일자리를 버리고 떠나도록 강요 받아 괴로워하

는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추방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세계의 모든 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당신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보호로 싸매어주소서.

모든 악과 전쟁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모든 나라와 온 인류를 당신이 보호하시는 품 안에서 낮이나 밤이나 지켜주소서.

그들을 모든 악과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보호하심으로 품어주소서.

주여,

버림받고, 불의(不義)로 인해 고통을 겪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소서.

주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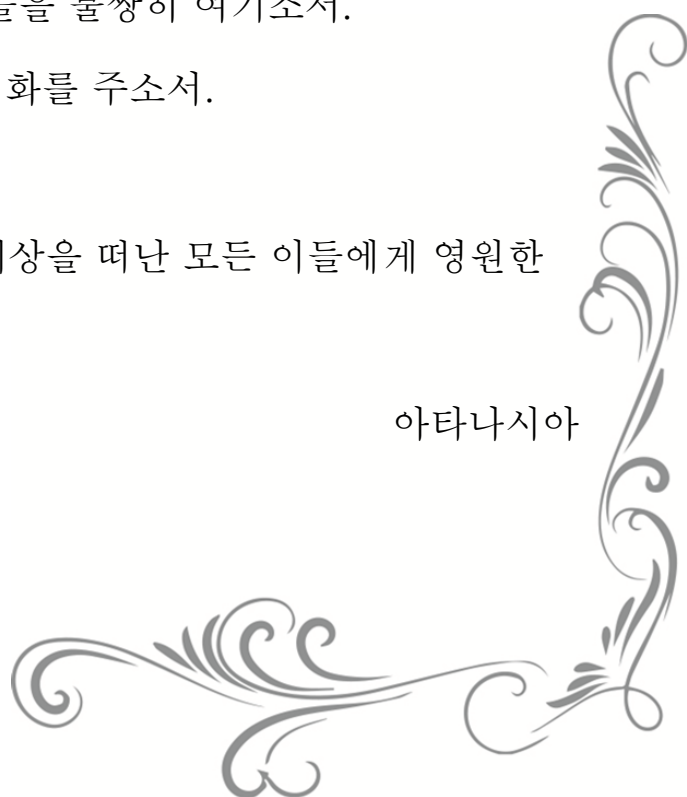
온갖 종류의 영적, 신체적 문제로 고통을 겪는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절망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평화를 주소서.

저희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창조 이래로 이제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희망을 갖고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타나시아





대교구

■ 역사적 공동 성명

정교회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와 천주교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성공회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2021년 유엔기후변화 협약을 계기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습니다. “신앙과 세계관에 관계없이” 세계 모든 이들이 “행동 양식을 되돌아보고, 지구와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지구를 위해 의미 있는 희생을 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래는 아마도 더 안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것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의 공동 거주지인 지구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당함을 책망하였습니다. “우리는 가혹한 정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탐욕스럽게 소비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손실, 환경악화 및 기후 변화는 우리 행동의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명백한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파괴적인 영향으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이러한 결과에 책임이 제일 적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정교회, 천주교, 성공회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환경 보호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수도원 봉사 활동

지난 9월 25일 장년회는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름을 지내면서 자라난 수도원 정원의 많은 잡풀들과 밭을 정리하였고, 성당과 건물 내부 전체를 청소하고, 수리하고, 정리해주셨습니다.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